

이웃사랑

2023
vol.267

전문치료센터 06
장애친화 산부인과

PMC 명의 12
각 과의 전문의 소개

만남의 광장 22
신충식 병원장님 취임 1주년 기념

2023. Vol.267
다시 태어난
이웃사랑



<카톡플러스채널>



<인스타그램>

예수병원 SNS를 통해 예수병원의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54987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신충식

편집인 김병선(홍보실장)
서포터즈 오지윤(마취통증의학과 과장)
김병관(호흡기내과 과장)
윤신희(영양과)

기획 예수병원 홍보실
사진 김내성, 김찬경
디자인 제이아이디자인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홈페이지>

예수병원 메인 홈페이지에서 진료예약, 병원 안내 및 다양한 의료정보를 만나보세요.

Contents

□□□□□
Vol.267



04
INTRO
하나님의 병원, 예수병원

06
전문치료센터
전국 최초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10
질병과 치료
알아두면 좋은 난임치료

12
PMC 명의
예수병원의 명의
: 전북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수병원 사람들

14
따뜻한 시선
마음에 새긴 아릿한 인연,
가없는 그리움이 되다

16
PMC Ministry
선교의 길, 이야기를 담다

20
동문자랑
이웃의 몸과 마음을 돌보다



22
만남의 광장
취임 1주년, 신충식 병원장과의 만남

24
JTV 토닥 다시보기
심폐소생술과 혈관성 치매

26
하이라이트 뉴스
예수병원의正道(正道)를 위하는
(재)예수병원유지재단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1등급 예수병원

28
언론 속 PMC
PMC on



32
건강한 미래 후원
동행,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34
Schedule
진료일정 안내



예수병원은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듯
아픈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병원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전주 선교사를 기억하다

the missionaries in Jeonju



전주 선교사들의
역사와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의
선교를
위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입구의 점자 안내판과 터치식 자동문, 넓은 복도와 문턱이 없는 이곳.
 곳곳에 보이는 세심한 배려에, 입구로 들어가면서부터 편안함이 느껴지
 는 이곳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다.
 2022년 11월, 전국 최초로 개소해 방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예
 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들여다 본다.



접근 편의를 고려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의료서비스와 부인과 진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 여성을
 위한 시설과 장비 및 진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5명의 산
 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하여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장애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코디
 네이터들이 진료실과 병동, 분만실에 배치되어 있어 24시간
 여성장애인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문턱이 없다는 것과 자동문의 터치패드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간의 특징이다. 휠체어 사용자의
 시선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도의 넓

은 공간은 통행의 불편을 줄여준다. 안내데스크는 한쪽 옆의
 턱을 낮추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
 해 두었다. 넉넉한 공간의 진료실과 분만실, 휠체어 체중계, 이
 동식 전동리프트, 전동침대, 전동휠체어 충전기 등 장애인 편
 의 장비도 갖추고 있다.
 예수병원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개소한 이후로, 산부인과 진
 료에 대한 여성장애인과 비장애 여성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
 다.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개소하면서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
 라 의료진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
 념할 수 있다고 한다.





홍상기 장애친화산부인과센터장

1898년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께서서는 여성과 소아를 먼저 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 여성의학센터의 태동이 예수병원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66년도에는 Dr. Dorothea Sich 선교사께서 예수병원 산부인과 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셨고, 1972년부터 전공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소한 여성의학센터는 부인암 환자를 비롯한 부인과 질환의 치료와 모자보건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태원 과장

작년 말과 올해 초, 하반신 마비 환자분을 치료한 기억이 있습니다. 손을 이용해 하반신을 끌고 이동하시다 보니 외음부에 마찰로 인한 혹이 생기셨습니다. 수술실에서 혹을 제거하고 잘 봉합하고 소독을 매일 해드리면서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는데, 조직이 위축된 데다가 당뇨도 동반되어 상처가 벌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성형외과 과장님 조언을 듣고 매일 드레싱을 하면서 상처가 자연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고, 추후 잘 나아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보호자와 환자 그리고 장애친화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치료에 잘 응해주셨기에, 감염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로받고 오길 잘했다며 웃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예수병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해 잘 모르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을 포함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 주셔서 산부인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장애인 환자분께 여쭙보면, 비장애인 분들이 1년에도 몇 번 받으시는 초음파, 2년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자궁경부암 검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 더욱이 산부인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을 요하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로서 진료를 받을 권리와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적으로 불편하시거나 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예수병원 산부인과로 내원하시거나 핫라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디네이터 이성희 간호사



이성희 간호사 한마디

여성 장애인의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1.6배 낮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예수병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수준 격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병원에 내원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진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매주 수요일 오전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환자 전용 시간으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예약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첫 방문이시라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예약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핫라인(063-230-1504)로 연락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예수병원 콜센터(063-230-8114) 또는 응급실(063-230-828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산모는 분만실(063-230-8490)로 문의 후에 내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어떤 진료들이 가능한가요?

A 모든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여성질환의 치료나 검진이 필요한 부인과 환자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임신부에게 임신, 분만, 신생아 관리까지 연속적인 진료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과 태아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Q 진료방식이나 의료서비스에서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특수 휠체어, 성인 기저귀 교환대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장애인 환자가 진료받으시기에 편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인 진료가 원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동행, 진료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난임치료

대한민국 10쌍의 부부 중 1쌍. 1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난임.
여성의학센터 문정범 과장이 말하는 난임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전한다.



문정범 과장

◆ 진료분야

난임, 시험관아기 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 수술

◆ 약력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예수병원 인턴, 전공의 수료
- 임실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 문산부인과 병원 산부인과 과장
- 원광대학교 석사
- 충남대학교 박사 수료
- (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강사
- 산부인과 보조생식학회 정회원

알아두면 좋은 조기 검진과 치료 비용 지원

평소 생리통이 심하거나 골반통이 심하다면 조기 검진을 통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사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35세 이상의 부부 사이에서 6개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난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나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난임 진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제도' 등 지원 사업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임이 무엇이며, 난임의 원인이 있나요?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1년 이상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 또는 남성의 원인일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배란 장애와 난관 및 복막 인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관이나 나팔관이 막히는 난관 복막 인자는 자궁내막증과 과거 골반염을 앓았던 과거 병력으로 인해 난관 유착이 생겨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난임 검사와 치료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성의 정액 검사입니다. 검사상으로 희소정자증이 심하지 않거나 원인 불명이라면 인공 수정을 먼저 합니다. 인공 수정으로도 임신이 안 된다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달이 배란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란 장애가 원인이라면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 치료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자궁 난관 조형술 검사를 통해 난소와 자궁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나팔관이 잘 개통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나팔관이 막혀 있다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호르몬 검사나 난소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AMH(항물리관호르몬)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임신 성공 확률이 나이와 관련 있나요?

임신에는 나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는 결혼 연령층이 높아져서 난소의 기능 저하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기타 내분비나 자궁 요인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번의 월경 주기 동안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수태능'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의 수태능은 25%입니다. 난임 진단의 경우 수태능은 2%에 불과합니다.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5~20%가량의 임신 가능성이 있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면 약 25~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40세 이상의 여성은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이 10~20%로 감소합니다.

사회적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 계획을 미루는 부부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원하더라도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병원의 명의

: 전북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수병원 사람들

예수병원에는 더 나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명의가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환자에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전하는 이들을 지면에 담아 소개한다.



신경외과 | **공태식** 과장

뇌졸중, 혈관내 수술 명의



순환기내과 | **박종필** 과장

심장, 말초혈관 시술 명의



대장항문외과 | **김갑태** 과장

대장암 수술 명의



상부위장관외과 | **이종명** 과장

위암 수술 명의



소화기내과 | **조진웅** 과장

위장관암, 내시경 수술 명의



정형외과 | **송경진** 과장

척추 명의



신장내과 | **선인오** 과장

만성 콩팥병 명의

마음에 새긴 아릿한 인연, 가없는 그리움이 되다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만나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바로 간호사다.

빈틈없는 돌봄으로 24시간 함께하기에 잊지 못할 특별한 인연도 많다.

예수병원은 지난 7월 3일부터 2주간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억에 남는 환자와의 스토리를 공모했다.

그중 임상 2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애달픈 사연으로 당선된 34병동 빈영주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천국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여주, 네가 사!

생사를 넘나드는 임상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새 2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예수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동료,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관계로 맺은 인연 중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었고 내 간호 인생에 의미 없던 만남 또한 없었던 것 같다. 대부분 감동이었고 보람이었으며 감사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아직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정확히는 내 마음에서 보내지 못한 인연이 있다.

2004년 봄, 정확히는 5월 8일 토요일이었다. 502호 2번 자리에 22세 남자 윤여주 환자가 입원했다. 환자 네임 마크에 진단명을 쓰며 잠시 멈칫했다. “HCC... 응? HCC?” 하얀 피부와 제법 곱상하게 생긴 외모에 HCC(간세포암)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진단명이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환자에서 간세포암이 흔하지 않다 보니 몇 번이고 재확인했던 기억이 난다. 2년 차 간호사인 나는 간호 초기 평가를 하며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몇 가지를 추가로 알게 되었다. 내 동생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이며 심지어 군대도 같은 시기에 근처에서 복무했다는 사실, 군대에서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곤 했었는데 제대로 하고 이제야 제대로 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병영문화를 홍보며 금세 마음을 열게 되었다. 하루 이틀 쉬고 나오니 여주는 간 조직 검사를 하고 회복 중이었다. 병원 생활은 어떠한 질문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얹어놓고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으라는데 검사보다 허리가 아픈 거 참는 게 힘들더라구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출혈 예방 외에 환자의安危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어 “선생님, 혹시 오늘 퇴근하고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데 어쩔지 만나 주어야 할 것 같은 가슴 저림이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다. 지금은 사라진 옛 주차장 옆 좁은 잔디밭 벤치에 앉아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더니 “HCC가 뭐예요?”라고 물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짧은 순간 ‘애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 하는 원망과 ‘뭐라고 말해야 책임지지 않을 짓을 하지 않는 거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간세포암이라고 하는 건데 넌 아직 확진이 아니야.”라고 말해두고서 힐끗힐끗 눈치를 살폈다. “형은 저보다 어릴 때 먼저 죽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드시겠네요.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입원해서... 이런 불효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답답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여주가 너무 가여워서 가슴이 아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코끝에 닿은 아카시아 향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나서 돌아서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여주는 찹찹하게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 주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간담체 외과 김우영 과장님, 신경외과 신동규 과장님께서 전이암 수술을 해주셨다. 부작용으로 힘들어했지만 항암 치료도 꾸역꾸역 잘 해내었다. 여주는 늘 5층 동쪽 병동에 입원하길 원했다. 5층 동쪽 병동 간호사에게 여주는 단



▲ 34병동 빈영주 간호사

순한 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생이었기에 입원 기간 내내 약을 줄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하성현 간호사님, 근무 외 시간에 찾아와 말동무하며 성경을 읽어주는 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이끌었던 백성민 간호사님 등 이모가 조카를 돌보듯 특별하게 바라봐 주는 수선생님과 책임간호사님들이 계셨기에 5동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예수 향기 가득한 예수병원다운 예수병원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나에게도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근무 중에 숨이 차서 몇 걸음 걸으면 주저앉게 되는 증상이 며칠 이어지게 되어, 검사를 받았는데 폐에 양성 종양이 보인다고 하였다. 폐 조직 검사를 하고 약을 먹으며 병가 휴가를 하게 되었다. 입원 중인 병실에 환자복을 입은 여주와 여주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 불신자였던 여주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몇 줄 아니었지만, 펄펄 울며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여주 어머니는 처음 만나는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식 아픈 거 바라보는 엄마 마음을 잘 아신다며 위로하셨다. 빈간호사가 아프다 해서 너무 걱정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나는 병원에서 내 모든 기운을 환자에게 주고 온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왔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여주와 여주 어머니의 기도와 위로 받으며 감히 내가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다 준다는 것인가! 이런 오만함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환자를 통해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여주와 여주 어머니께서 되돌아가신 후 꽤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었다. 여주는 임종이 임박하면서 더 이상 5층 병동에 입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나에게 최선을 다한 누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가 이유였다. “통증이 조금 좋아지면, 조절되면 맛있는 밥 살게요. 그때 만나요.”라고 하더니 2005년 12월 눈이 많이 내린 날 밤에 천국으로 떠났다. 장례식장에 둘러앉아 육개장에 밥 한 그릇 말아먹으면서 “다음엔 자기가 맛있는 밥 사준다더니 이렇게 밥을 사는구나.” 한마디에 함께 있던 5층 병동 선생님들이 펄펄 우느라 어떻게 그곳을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분쟁을 하시느라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뉴스로 간간이 접했지만 먼저 연락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분들과 마주해서 슬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하고 큰 아이와 임신 호국원에서 미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여주를 보고 싶어 찾아갔다. 여주의 묘에 놓

인 꽃이 가지런하고 싱싱한 것이 누가 다녀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부모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고 이제 는 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아이의 도화지를 찢어서 연필로 한 자 한 자 짧은 편지를 남겼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병원 빈영주 간호사입니다. 여주도 부모님도 잘 계신 것 같네요. 부모님께서 이 편지를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뵈고 싶어요.’ 혹시 비가 오면 젖을까 봐 차에서 CD 케이스를 가져와 편지를 넣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오며 제발 이 편지가 부모님께 닿기를 기도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은 딸아이에게 여주와 5동 간호사 선생님과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나의 간절함이 닿았는지 일주일쯤 후에 여주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빈간호사님~ 너무 고마워요. 결혼은 했나요? 하성현 선생님, 백성민 선생님 지금도 일하나요? 다들 어떻게 지내요?” 오랜만에 나누는 인사에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을 받으면서 ”어머니~ 한번 뵈어요.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그렇게 또 7년이 흘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안심이 되었던 것인지, 내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던 것인지... 여주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아직도 하지 못했다. 혹시 이 글을 예수병원으로 진료받으러 오시는 길에 여주 부모님께서 읽게 되신다면 또는 여주 부모님의 지인께서 읽게 되신다면 여전히 나는 여주가 가끔 그림과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쓸 결심을 하였다. 여주의 이야기를 써도 될까? 고민했지만 이 글과 내 마음이 그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었다.

여주야! 너와 함께한 봄은 아픈이고 너를 보낸 겨울은 그리움이었어.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천국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네가 사줄래?

여주 부모님! 건강하시지요? 이번엔 진짜 맛있는 식사, 꼭 대접하고 싶어요. 연락주세요.

2004년 5층 동쪽 병동에 근무했던 간호사 선생님들! 저에게 넘치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보여주신 크리스찬 간호사의 모습 되새기며 이어가겠습니다.

본 원고는 예수병원 내 공모전 '환자와의 Story: 간호사편' 당선작의 원고를 요약 수정하였습니다.

선교의 길, 이야기를 담다

본 코너의 원고는 참여자가 보내 주신 소감문을 바탕으로 요약 작성되었습니다.

소감 3년 차 간호사 수련회



34병동 김경서

만 3년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며 현재의 일터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3년 차 수련회는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동기들과의 교제를 통해 다양한 부서의 고충을 알게 되어 타 부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라는 존재는, 강사님들의 여러 강의를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간호사로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1병동 강주안

학생 때 예수병원에 입사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입사를 하고 나의 삶에 지쳐 처음 다짐했던 마음은 잊혀져만 갑니다. 그런데 3년 차 수련회를 통해 선교란, 삶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것 선교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병원의 기독 간호사로서 간호를 실천하고, 기독 간호사를 양육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역사를 지닌 예수병원의 사역은 꾸준히 이어진다. 올해 6월, 이틀에 걸쳐 진행된 '3년 차 간호사 수련회'의 소감부터 캄보디아로 떠난 의료 단기 선교팀의 이야기, 8주간 진행된 상반기 선교훈련 참여자의 생각까지.

예수병원의 가족이 전하는 선교와 사역의 울림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94병동 김민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어진 근무를 해치우고 '3년 차 수련회'라는 또 하나의 근무를 해치운다는 마음으로 심랜드로 출발! 코시국 입사로 동기들을 잘 모르기도 했고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함께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우리 예수병원에 대해 다 시금 애사심을 가지는 기회였고 내 안의 선교 마인드를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라서 특별히 감사했다. Embrace your dream! 4년 차(만3년 차) 슬기로운 간호사 생활을 위해 다시 도전해보려 한다!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부지런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영향력 있는 선·후배가 되고 싶다.

NICU 설소명

어느덧 3년 차가 돼서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 처음에는 정말 설레고 기대되었다. 수련회를 가니 처음 보는 동기들이 많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까지의 병원 생활에 대해 위로받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근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수련회였다.

소감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

소아과 간호사 강예진

나의 첫 선교지역인 캄보디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외에 정보가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하는 선교팀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합류하였다. 선교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봉사하러 간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지만 선교 훈련을 통해 선교사, 선교지, 예수님의 복음전도 등 많은 것을 배웠고, 직접 선교를 나갔을 때 많은 감동과 아쉬움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는 너무 더운 날씨였다. 선풍기만 의지한 채 몇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PMCI 직원들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도왔다.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었고 그들을 통해 내가 더 부끄러웠으며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주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위해 선교사님을 먼저 예비하셨고 이렇게 많은 PMCI 직원들을 계획하신 것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최영환

동료 직원의 권유로 깊은 생각 없이 단기선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첫 모임에서 과장님과 선생님들의 선교 지원 동기과 신앙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했다. 4월부터 6월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까지 나의 생활은 기도 모임과 선교 훈련 과제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았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캄보디아 절반의 신앙은 불교라는 PMCI 직원들의 찬양을 들으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믿지 않는 그들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야 주님의 사역에 나서다니.' 많이 반성이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의료선교도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나의 순종과 나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자고 생각되는 시간이었다.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조은규

캄보디아 선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부터 생각해 보자. 나의 삶이 그들보다 좀 더 윤택하기에 혹은 내가 그들을 가엾게 여겼기에 지원했던가? 12시간이 넘는 이동시간으로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의 상태는 피로함만 가득하였다. 그러나 나는 둘째 날 PMCI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기대가 내 안에서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현지 직원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서 묵묵히 섬겨 주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하여 남은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끝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나의 앞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기대가 된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 단기선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지금 나의 대답은 '나도 잘 모르겠다.'이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나를 그곳으로 이끄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진 모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남은 나의 삶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2023년 상반기 선교훈련 수료자 명단

이성희, 최영환, 홍상기, 신우람, 이은선, 김조은, 문예찬, 이유경, 전지훈, 박예랑, 박수빈, 박예진, 이이삭, 김지민, 김지혜, 전문희, 호요한, 이주현, 박진영, 오지은, 이상영, 김주은, 김서영, 김신정, 최줄리, 박지수, 김찬경, 임종산, 박민주

소감 상반기 선교훈련

임과 전문희 과장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외 및 국내 아웃리치 선교를 많이 해본 나는 “선교”가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대학생 시절엔 성경을 펼치고 동기들과 몇 시간 나눔을 할 정도로 내 믿음은 굳건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특정한 나라를 향한 선교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 자만한 적도 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가고, 자연스레 친구들과 함께 해외 선교를 갔듯, 이번 훈련 또한 특별한 고민 없이 그저 누군가가 함께 가자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매 회차가 지나고, 주말에 훈련을 준비할수록 성경과 괴리가 있는 내 삶을 발견하면서 이번 훈련은 자연스러움이 아닌 불편감, 부끄러움을 야기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며 배척받지 않는 좋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에, 빨리 변하는 세상 속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는 세상에 용기 있게 대면하기보다는, 은연 중에 그 속에 섞여 편안함을 누리지 않았을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냥 물 흐르듯 살아

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피해받는다 생각하니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진 않았다. 이번 훈련을 통해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짐으로 내 부끄러운 삶을 돌아켜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 선교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시선을 갖게 되었다.

온 세상은 우리의 선교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 -내가 일하는 병원, 내 가정, 내 교회- 모두가 나의 선교지이다. 우리는 해외로는 보내는 선교사이면서 현재 일상으로 부름 받은 선교사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심껏 그분을 증거하고,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가 좋은 소식, 변화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증거를 보여야 한다. 거룩

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훈련이 끝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희망으로 계속 일어나 선한 싸움을 하며, 기도하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란다. 당장 앞은 캄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간호국 박예랑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8주간의 여정은 고민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행하기 어려워 외면했던 부분들, 잊고 있던 부분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민과 생각들을 조별 모임을 통해 나누는 시간은 기쁨이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에는 나의 시선에서 더 넓게, 더 깊게 확장되었고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직급도, 근무부서도 모두 달랐지만 강의 내용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예수병원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내려 애쓰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예수병원에 소망을 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내용 중 새로운 삶은 다른 삶으로 이끌어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삶의 목적, 삶의 주인, 삶의 방법에 대한 변화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사는 삶. 잊지 않고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학과 박사박수민

이번 선교 훈련 주제가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무엇인지 등 한층 더 깊은 내용을 다뤘고 실제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강의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 섬김이로 참여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총체적인 선교의 모습, 현 선교의 모습, 앞으로의 선교가 갖춰야 할 것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사역하셨던 경험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느껴졌고 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직장과 신앙을 나누지 않고 모든 곳에서 해야겠다는 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조별 모임으로 책과 강의를 통해 느낀 점, 앞으로의 내 삶의 적용 등을 나누며 다른 시각으로도 나를 새롭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믿음의 교제 시간을 통해 강의에서 배우고 다짐했던 것을 더욱 굳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성경적 윤리 없는 성경적 선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하며 말씀으로 영적 자분을 쌓아야 함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 섬김이로 참여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고 섬김이 선생님들을 보며,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통해 다짐한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웃의 몸과 마음을 돌보다

내과 전공의로 예수병원에서 5년간 근무했던 이덕수 원장은 ‘이덕수 내과’를 개원하여 지역민에게 의술과 인술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이덕수 내과에서 아중지구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중지구가 형성되기 전, 응급실도 없는 곳에 ‘이덕수 내과’를 개원했다. 개원 이후 내원하는 환자가 늘자, 그는 휴가 없이 야간 진료를 하며 환자를 돌봤다. 24년간 약 4만 건의 위내시경, 1만 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3만 건 이상의 복부초음파 등이 증명하듯이 그는 쉬지 않고 수많은 환자와 만남을 이어왔다. 경영보다 인술에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의료인 확충과 병원 확장의 유혹을 이겨내고 환자 맞춤형 원스톱 의료와 케어를 하고 있다. 환자의 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육체적 내과 건강은 물론이고 그의 진료에 마음과 정신적 소통, 영적 돌봄을 느낀 환자들이 있기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가 병원을 개원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다. 이 원장은 환자를 섬겨오면서 이덕수 내과를 천국으로 가는 작은 간이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곳의 청지기로 일하며 얻은 행복을 지역사회와 같이 나누고 상생을 위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지역민의 소리를 가까이 듣기 위해, 아중발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위원, 주민자치위원 등 조직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10번의 이사와 15년의 자취 생활을 경험했던 이 원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빈번히 마주했다. 신흥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미션스쿨의 영향으로 예배와 찬양을 접했고 의대 누가회(CMF)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후 전주제자교회에서 초신자, 세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선임 장로를 거치면서, 37년간 그가 본 것은 창조주께서 늘 아프고 굶주린 인생에 먼저 다가오신 사랑의 러브레터(성경, 선교사들)였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의 열방에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담아 이웃을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약 10여 년간 이 원장은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동사무소, 경로당, 돌봄센터 등에 왕진, 무료 진료, 건강강좌를 진행해왔다. 또한 무주, 진안, 장수 등 의료 편의시설이 적은 지역과 전주교도소에 무료 진료를 10년 이상 추진하기도 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건강 칼럼, 무료 음악회 등 그는 자신의 달란트를 사회에 나누고 있다.소통과 봉사를 실천하는 이덕수 원장. 그의 이야기는 이웃을 살피는 이 원장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아중지구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예수병원에 전하는 이덕수 원장의 한마디

제가 평소에 ‘박사 위에 봉사, 봉사 위에 감사’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의학 지식을 위해 배움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병원을 생각하면, <담쟁이> 시가 떠오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없는 담쟁이 하나가 벽을 넘지 못하다가 여러 개의 담쟁이가 합쳐지면서 담을 넘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병원의 공동체도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함께 손을 잡고 헤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주신 크고 멋진 달란트에 봉사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여러분,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이덕수 원장(의학박사)

- 대한의사협회 의무의원
-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단 위원
- 전북 애향본부 이사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생회원
- 내시경·초음파 인증의
- 공중보건 (보건지소장)
- 전주한국병원 내과과장
- 전주 온고을산악회 전 고문
- 전주·완주 내과의사회 회장
- 전라북도 의사회 의무의사 및 코로나 대책위 본부장
- 전주시 의사회 정책이사, 전 감사
- 전주 신흥고 총동문회 부회장, 장학회 이사
- 예수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 예수병원 총동문회 총무
- 전주교도소 자문위원
- 전주제자교회 (선임)사무장으로
- 한문화 국제협회 부총재
- 전주시모범시민상
- 전북지방경찰청장상
- 전라북도 도지사상
- 대한의사협회장상
- 한국 인물열전 33인 선정
- 현대 한국인물사 등재
-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 대한민국 인물대상
- KCA 한국 소비자 공헌 대상
- 대한민국 공헌사 발간위원회 자랑스런 한국인 수록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시사투데이 등 여러 언론과 신문에 기사화
- 전북의사회 코로나 대책위 본부장으로 KBS 등 여러차례 심층토론
- 전북마당, 새전북시눈 등 수년간 건강칼럼 진행

취임 1주년, 신충식 병원장과의 만남

예수병원 제25대 신충식 병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
신충식 병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예수병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예수병원만의 차별화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다.



66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99

☞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예수병원의 오늘

예수병원 125년의 역사 중 지난 1년은 예수병원의 명예로운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최고의 전도라는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병원을 경영하며, 예수병원 직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우를 섬기고 있습니다. 병자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고쳐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환자의 고통과 절망에 공감하는 그 마음이 더해져 진료와 선교가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병원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습을 버리고 객관적 병원 운영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과 7가지 중점 육성 영역을 선별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시설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앞으로 또 다른 100년 동안 갚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과 구바울 의학박물관의 개관으로 인해 호남지역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알리며, 주변 경관을 활용해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전국 최초 장애인화산부인과 개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북 치매 센터 및 전북 보조기 센터 운영으로 예수병원만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예수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도약을 앞둔 예수병원

예수병원을 통해 국내외 많은 의료인이 훈련되고 전문가로 성장하여 가장 필요한 그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전국의 꿈이 있는 의료진들이 예수병원에 인턴을 하고자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의 본을 따라 이곳에서 21세기의 슈바이처와 나이팅게일이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권역 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125년 전, 홀로 조선 땅을 찾았던 마티 잉골드 초대 원장처럼 모험하고 도전하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 신충식 병원장의 다짐

최근 예수병원은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화된 전문센터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뛰어난 명의를 초빙해서 의료진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전북도민들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병원의 명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닌 당시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 그리고 환자를 섬기는 마음이 하나로 모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예수병원의 역할을 알리고자, 중증 질환을 가장 잘 보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병원, 세계에서 의료선교를 가장 탁월하게 감당하는 선교 허브병원,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

응급의학과 박홍인 과장

전문분야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약력	대구가톨릭대학교 의학과 졸업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인턴 수료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수료 차의과학대학교 의학 전문 대학원 응급의학과 임상 조교수 예수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대구 경북 소방서 구급 지도 의사 전라남북도 소방서 구급 지도 의사



6월 11일 **JTV** 방영
다시보기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홍인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위급한 상황에서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인명 구조 기술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뇌, 심장, 폐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힌 후,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분당 100~120회,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른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한다면 생존율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1분씩 지연되면 환자의 생존율은 7~10%씩 낮아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두 손의 기적,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 깜빡? 혈관성 치매

신경과 하연수 과장

전문분야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혈관성 치매	
세부전공	죽상경화증, 대뇌소혈관질환(백질 변성)	
약력		
전북대학교 의학대학 졸업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뇌졸중 임상강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대학원 의학석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외래교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대학원 의학박사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권역뇌혈관센터 임상교수	
전북대학교병원 인턴수료	호성전주병원 신경과 과장	
서울 상계백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수료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정회원	
광주보훈병원 신경과 과장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	
	대한치매학회 정회원	



7월 23일 **JTV** 방영
다시보기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하연수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조직이 손상되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치매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빠르고, 단계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에 기복이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초기부터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감정 조절기능 장애와 같은 국소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 고호모시스테인혈증 등이 위험인자이며, 원인이 되는 질환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므로 뇌졸중의 다양한 위험인자를 엄격히 조절하고, 조기진단과 적절한 예방적 치료를 한다면 질병의 예후를 개선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수병원의 정도(正道)를 위한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재)예수병원유지재단 고영환 이사장

지난 6월 16일, (재)예수병원유지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이·취임예식이 열렸다.
올해 취임한 고영환 이사장은 인자한 미소로 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언급했다.
고영환 신임 이사장이 말하는 재단의 모습을 전한다.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지켜나가야 할 재단의 역할

첫째는 예수병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병원은 1898년 의료선교사 마티 잉골드의 진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병원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인 것입니다.

둘째는 병원장과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병원 경영 및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병원의 최고 경영자로 채용된 신충식 병원장이 임기 동안 예수병원의 정체성을 품고, 마음껏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은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예수병원의 가족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하며 인생의 보람이 되는 곳이자 긍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며 동행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더 나아가 열방 나라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단 운영 방향

예수병원을 '예수교회'라는 슬로건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교회'는 신약성경 원어로 '에클레시아(ecclesia)'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지요. 예수병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리스도의 몸 된 예수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병원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며, 이는 우리 예수병원이 예수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예수병원은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선교병원으로서의 존립과 역할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려 합니다.

또한 재단은 병원장이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병원의 모든 가족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1등급 예수병원

제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1등급

새전북신문 2023.06.11

전주예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획득해 정신질환 치료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본 평가는 입원한 환자 대상의 서비스의 표준화와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30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평가지표는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등을 평가하였는데 예수병원은 입원, 퇴원시 기능 평가는 모두 100점 및 정신요법도 타병원 비교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신충식 병원장은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전문화된 진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수병원은 지난 21년 1차 평가에 이어 1등급을 유지해 전라북도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 의료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

NSP통신 2023.06.13

전주예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8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와 '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8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만 40세 이상의 해당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등의 평가지표와 COPD상병 점유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7개 모니터링 지표를 평가해 종합점수 84.8점을 획득해 종별평균점수를 상회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8년 연속 1등급 유지는 직원들의 노력과 예수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믿음에 보답하는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MC ON

순서	일자	매체	제목
1	05.04.	의학신문	예수병원, 지역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 교류
2	05.07.	새전북신문	예수병원 신장내과 이하은 과장, 대한신장학회 우수연구자상 수상
3	05.11.	전민일보	예수병원 감염관리실 '손 씻기 캠페인' 실시
4	05.23.	국제뉴스	예수병원, 모악산에서 친환경 클린 캠페인 '클린 산행' 전개
5	05.25.	전북도민일보	(인터뷰) 김병선 예수병원 홍보실장
6	05.26.	이뉴스투데이	예수병원, "선교사와 예수병원" 최미정 작가 작품 기증받아
7	06.02.	아시아뉴스전북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회, 전주 영아원 후원
8	06.07.	전라매일	예수병원, 제18차 의료선교대회 준비 박차
9	06.07.	의학신문사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팀,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 논문 발표
10	06.08.	국민일보	예수병원 감염관리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우수 연재상' 수상
11	06.13.	의학신문	전라북도 직장인 축구대회, 예수병원 축구팀 우승
12	06.13.	전민일보	예수병원, 새만금 스카우트챔버리 협력병원 지정
13	06.15.	뉴스1	예수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실시
14	06.23.	전라일보	예수병원,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도상훈련 시행
15	06.26.	전북도민일보	예수병원 응급의학과 노윤채 과장 전라북도 도시사 표창장 수상

01

예수병원, 지역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 교류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전북 지역의료기관과 진료정보교류 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연계·협력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 내실화를 파악해 선진화된 진료정보교류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논의를 통해 ▲회송의뢰환자의 편리성 증가 ▲지역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중증치료병원으로 신환 초진 당일 진료 가능 ▲재회송을 통한 치료의 연속성 유지 ▲EMR, 진료 앱(치유) 등을 통한 접수 수납 편의성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도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석재 누가내과연합의원 원장과 김재학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부장이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으며, 100여 명의 전북지역 의료기관 병의원장 및 행정 보직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02

예수병원 신장내과 이하은 과장, 대한신장학회 우수연구자상 수상

이하은 신장내과 과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하은 과장은 2021년~2023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임상강사로 근무하며 '이식 전 저역가 공여자 특이 항체가 신장이식 후 임상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SCIE 학술지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Impact Factor: 4.941)에 게재했다. 본 연구에서 이식 전 교차반응이 음성이라도 루미넥스 단일 항원 검사에서 확인된 공여자 특이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신장이식 후 급성 거부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고 특히 뇌사공여자 신장이식에서 생체공여자 신장이식에서보다 그 효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식 전 면역 검사와 탈감작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하은 과장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신장질환은 급증하고 있고, 신장은 한 번 기능을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신장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장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03

예수병원 감염관리실 '손 씻기 캠페인' 실시

예수병원은 COVID-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국내 '종식 선언'을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고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감염 예방 '손 씻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바른 손 씻기로 감염병 예방을 독려하는 본 캠페인은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열렸다. 환자 안전의 기본인 '손 씻기 캠페인'은 감염관리실이 주관하고 예수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병원 로비에서 대규모 플래시 몹 행사를 펼쳤다.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동안 누적된 의료진과 환우들의 피로도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행사는 병원을 찾는 환우들에게 다시 돌아온 일상에 감사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을 돌이켜 보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04

예수병원, 모악산에서 친환경 클린 캠페인 '클린 산행'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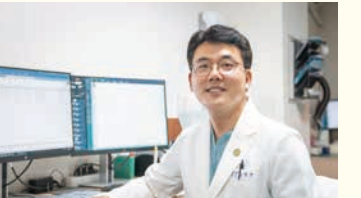
지난 20일 전주 모악산에서 전북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성공의원 프로젝트 두 번째로 친환경 클린 캠페인 '예수병원 클린산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예수병원은 안정적인 재활치료와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며 재활난민을 극복할 수 있는 전북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직원 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고, 통합재활병원 건립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재활의학과 직원들이 환우를 맞이하고 치료하면서 겪는 환우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재활난민을 극복하는 권역재활병원 건립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민에게 알리고자 스스로 동참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책이나 조깅을 통해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으로, 이를 통해 전북 공공의료계가 주목하는 권역재활병원 건립 성공기원을 담아낸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캠페인은 PMC_seum 인스타 계정을 통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팔로우 후 댓글로 캠페인 동참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 달 10일 진행하는 3번째必성공기원 프로젝트인 도민 걷기대회는 한걸음부모회, 한국물리치료사협회전북지부, 사)토닥토닥과 함께 준비 중이다.



05

(인터뷰) 김병선 예수병원 홍보실장

예수병원 홍보실장에 김병선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지난 1일 임명됐다. 김병선 전문의는 담도, 췌장질환을 담당하여 호남 최초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공장문합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으며 이어 홍보실장 중요 보직을 맡게 됐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준비하고 더 많은 수혜자를 돌보기 위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선 홍보실장을 찾았다.



2023년 4월부터 예수병원 홍보실장을 맡게 된 소화기내과 김병선입니다. 올해 125주년을 맞는 예수병원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귀중한 지역의 자산이며 지역사회의 굴곡과 수많은 이야기를 병원의 품 안에 뚜렷한 흔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중략) 홍보실장으로서 예수병원의 귀중한 가치와 좋은 의료의 성과들을 잘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회복된 환우분들의 이야기, 예수병원에서 배출된 자랑스러운 의료인들의 이야기도 지속해서 담아내겠습니다. 지역 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병원의 모습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06

예수병원, "선교사와 예수병원" 최미정 작가 작품 기증받아

지난 25일, 예수병원은 최미정 작가의 작품 "선교사와 예수병원"을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박진상 병원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최미정 작가는 예수병원 2대 원장 포사이드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그린 "다시 오신 예수 포사이드" 작품을 먼저 예수병원에 기증했다. 이후 예수병원의 장구한 역사의 현장에서 위대한 선교사의 사역을 영과 육의 회복(Reformed life)으로 나열하고자 "선교사와 예수병원"이라는 작품으로 승화시켰으며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했다. 평소 예수병원의 위대한 역사와 그 중심에서 헌신하신 선교사의 무한한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온 박 원장이 전해 듣고, 예수병원에 전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박진상 병원장은 "지역사회에서 125년 전부터 지역민을 돌보는 예수병원 선교사분들을 보면서 참된 의료인이자 이 시대의 표상이라고 생각했다" "지역사회에 소중한 기록을 표현하신 작품을 보고 예수병원 직원들과 지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감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07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회, 전주영아원에 2백만 원 상당 물품 기부 선행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회(김병관 회계)는 전주영아원에 2백만 원 상당 물품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원활동을 통해 영유아 성장 발육에 필요한 유산균과 종합비타민 등을 지원해 아동 건강 지킴이 역할을 실천하였다. 또한 영유아 필수 생활용품들 후원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가까운 이웃사랑 나눔에도 기여하였다. 김병관 임상과장회 회계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회는 정기적으로 시설 후원활동을 통해 지역보호 아동 및 소외계층을 후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08

예수병원, 제18차 의료선교대회 준비 박차

예수병원은 제18차 의료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2차 조직위원회를 병원 7층 회의실에서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의료선교대회는 예수병원과 전주온누리교회가 공동 주관하며, 198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34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국내외 기독교보건의료계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다음 사역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올해 대회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으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길을 밝히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2차 조직위원회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김명진 회장, 조원민 위원장, 이혜숙 부회장, 윤용순 조직위원장과 김병선 대회 총무, 예수병원과 전주 온누리교회 실무자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앞으로 예수병원은 대회가 열리기 전 3차례에 걸쳐 컨퍼런스를 준비해 세대별, 주제별 모임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할 방침이다.



09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팀,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 논문 발표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팀(조아영, 오주환, 이광영)이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인 KRCP에 논문을 발효했다. 이번 논문은 “글리포세이트 중독 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의 임상적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해당 논문이 실린 KRCP는 2020년 SCIE에 등재되어, 현재 임팩트 지수 4.172로 신장학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술지이다.

선인오 과장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중독으로 예수병원에 입원 치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빈도와 임상 양상 및 위험인자를 밝혔다”며 “앞으로 글리포세이트 중독 환자의 급성 신부전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병원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은 지난해 5월 세계적인 권위의 유명한 학술지인 '중개의학저널'에 “일차성 막성 신증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 내의 세포외 소포체의 마이크로RNA”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매년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전복 도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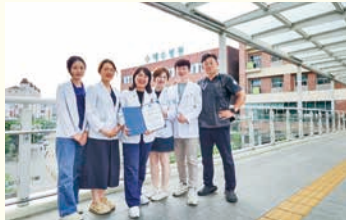


10

예수병원 감염관리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우수 연재상' 수상

지난 8일, 본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5월 19일(목)~20일(금) 이틀간 개최된 '2023 제28차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 학술대회와 연수 교육'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 연재상을 수상했다.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관련감염관리의 기본과 실제'라는 주제로 7개의 심포지엄과 2개의 특강, 4개의 연수강좌를 비롯하여 회원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포스터 및 구연 발표 시간을 가졌다.

해당 학술대회에서 전주 예수병원 감염관리실은 포스터 주제로 '신생아 중환자실 유행 발생 예방을 위한 증진 활동', '청소담당자 1:1 피드백을 통한 환경 감염관리 증진', '감염성 질환 노출 예방을 위한 직원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효과'를 발표, 우수 연재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관리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위해 감염관리에 대한 종합대책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팀원들과 시도하며 논의했다”라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관리 측면을 집중하여 전북도민들과 예수병원 간 신뢰도를 높이는 데 감염관리실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1

"사랑의 실천을 위한 발걸음,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걷기대회 개최"

예수병원은 본원 정문에서 지역사회 공공어린이병원과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지역 내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더 나아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많은 관계자가 모여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6.10희망세움 걷기대회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의 건립의 필요성을 전북도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라며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예수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함께 걷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와 소통을 이루며 전라북도에서 공공재활병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자리였지만, 참가자들은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얻은 인식과 지역사회의 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2

전라북도 직장인 축구대회, 예수병원 축구팀 우승

예수병원은 남원 이백구장에서 열린 전라북도축구협회장배에서 열정과 협동의 힘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지역 내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구성된 축구팀들이 경쟁하는 대회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경기가 시작되었다.

예수병원 축구팀은 대회기간 동안 뛰어난 기량과 팀워크로 눈길을 끌었으며 각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 트로피를 가졌다. 결승전에서 휴비스팀을 만난 예수병원은 탁월한 수비와 공격의 조화로 1: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특히 승부차기에서 냉철한 판단과 반응으로 골을 막아내어 5:4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기록했다. 예수병원은 원활한 패스와 서로의 위치 파악 능력으로 인한 팀워크를 자랑하며 예수병원 축구팀의 강점 중 하나를 대회 기간 내내 선보였다. 결승전 종료 후 예수병원 축구팀 감독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우리 팀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팀워크와 협동의 힘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라며 뿌듯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예수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축구팀 우승은 예수병원 회사 내부에서도 동료들과의 유대감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

예수병원,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협력병원 지정

예수병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로부터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오후 3시 예수병원 설대위기념연구동에서 열렸으며, 김윤덕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와 신충식 원장 등 예수병원 관계자가 자리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0여 개국 청소년 4만3,000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다. 조직위는 야영장 내 병원 1개소, 허브클리닉 5개소, 응급의료소 5개소를 설치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지원을 위한 리스닝이어 센터 6개소도 운영할 방침이다. 예수병원은 잼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의사 2명, 간호사 6명을 파견, 허브클리닉 1개소를 전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후송 환자에 대한 우선 진료 체계(fast track) 및 응급환자 진료 및 처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일부 감면, 통역서비스 제공, 진료 전·후 일반환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대기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14

예수병원,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도상훈련 시행

예수병원은 재활센터 샤론홀에서 의료기관 내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개최했다. 이번 훈련은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감염관리 중요성 인식, 상황 발생 시 대응·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도상훈련은 병원 내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접점부서 담당자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감염관리 실장, 감염관리 간호사, 병동간호사, 외래진료실, 영상의학과, 총무과, 시설관리과, 원무과, 응급센터, 보안팀, 미화부, 이송팀 등 세분화된 30여 명의 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시나리오 리딩을 실시했으며, 훈련 참가자는 주재자의 진행에 따라 시나리오 리딩에 참여하고, 문제점을 검토 및 절차를 개정하여 각 부서 및 대응능력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중철 감염관리실장은 “병원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항상 긴장된 자세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방문 시 여러 부서의 협조로 인한 진료 과정 표준화가 중요한 만큼, 교육을 통한 반복훈련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훈련 소감을 밝혔다.



15

노윤채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 주임과장, 전라북도 지사 표창장 수상

노윤채 응급의학과 주임과장이 전라북도 응급의료사업에 적극 추진해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상했다. 응급의학과 노윤채 주임과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난응급의료 대응력 강화 및 지역 응급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노윤채 주임과장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인으로서 구급 현장의 다양한 응급 환자들이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신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행,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1898년 예수병원의 설립자 마티 잉골드가 진료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1971년 용머리 고개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당시 호남 최대 규모의 예수병원 준공식이 거행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예수병원에는 253병상이 추가되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금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병원 내 센터와 환자를 위한 공간이 생겨났으며 기적은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2019년 설대위 기념 암센터가 증축되면서 47개의 병상을 추가해 현재 755 병상 준비로 불안정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지속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개소로 아픔은 덜고 따스한 마음을 채워드리는 통합돌봄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암센터의 선진화된 다학제 통합진료 서비스로 여러 전문의와 환자, 보호자가 함께 최적의 치료방법으로 진단부터 수술까지 시행할 수 있는 전라북도 건강 파수꾼 역할을 도맡아 오고 있습니다.

첫 용머리 고개의 기적은 벌써 50년도 더 된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기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에, 의료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적에 기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6

지난 125년동안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병원은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와 진심이 깃든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99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후원 형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후원 계좌 전북은행 510-23-0317364 / 국민은행 751901-01-465000 / 기업은행 304-020172-01-309
농협 658-01-031404 / 신한 07063-12-004188

✦ 후원 방법에 관해 본원 발전 기금 담당(063-230-8772)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안병, 암검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안병, 건강증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화, 수
	이재성	성안병, 암검진, 건강증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금
	최미림	건강검진 (위장관, 간, 담도, 체장질환)	월 ~ 금	월 ~ 금
	김호철	건강검진 (치과)	월 ~ 금	월 ~ 금
	오정은	건강검진 (부인과)	월 ~ 금	월 ~ 금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김지혜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 질환, 골다사질환, 부신 질환, 내분비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사질환,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휴직 (~23.09.15)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사질환,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수, 목, 금
류마티스내과 230-1300	이연경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소화기내과 230-1300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 질환	월, 목, 금	화
	김지웅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수, 금	화, 금
	정금모	간, 위장관 질환	월, 수	목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금	-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월,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월, 금
	양성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화, 수, 금	수
	조봉주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	월, 화
	이순관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금	목
	김상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	수
내과	박상진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	월
	류제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수, 목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목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금	화, 금
	김다혜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화, 목	월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월, 수	월, 목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심신, 인공심박동기, 체세동기, 전극도자절제술	수, 금	수, 금
	이광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수, 목	월, 수
	선인오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신장내과 230-1300	조아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수, 목, 금
	오주환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 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금	월, 수
	박효숙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혈액종양내과 230-1300	이가든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월, 목	-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내과	이충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결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수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질, 만성기침	수, 금	월, 수, 금
	김성민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질, 만성기침	화, 금	수
	하현영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질, 만성기침	수	화, 목
	권영은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 금	월 ~ 금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마취통증의학과 230-1580	오지윤	부인마취, 장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김정희	부위마취, 외래마취, 정형외과 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230-1520	박혜리	유방암, 자궁암, 임파종	월, 화, 금	수, 목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 ~ 금	월 ~ 금
병리과 230-8190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 ~ 금	월 ~ 금
	유성봉	폐병리	월 ~ 금	월 ~ 금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비뇨의학과 230-1440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박강서	소아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알레르기검사	월, 화, 금	월, 목
소아청소년과 230-1390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목	화, 수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목	월, 수, 목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금
	박상호	신장 성장 신생아질환	월, 화, 금	월, 목
	임선웅	신생아응급	-	-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녕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강동구	안면거상, 뽀따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신경과 230-1570	정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목, 금
신경외과 230-1420	허송근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수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내수술, 응급환자진료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수, 금	수, 금
	김효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응급환자진료	수	월, 수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화, 목	화, 목
심장혈관외과 230-1410	최종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화, 금	-
	송영진	안성형, 일반외과	화, 수	수, 목, 금
안과 230-1450	고명규	녹내장, 망막, 각막, 사시	월, 목, 금	월, 화

대표전화 1899-1843 / 230-8114,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일정은 2023년 8월 1일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여성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금	월, 수
	김경아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모,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화, 금	화, 금
	문정범	난임, 시험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수, 목 *장애진화 산부인과진료	화, 목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 ~ 금	월 ~ 금
영상의학과 230-8380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 ~ 금	월 ~ 금
	이미숙	흉부	월 ~ 금	월 ~ 금
	김운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 ~ 금	월 ~ 금
	김상현	복부, 비뇨생식기	월 ~ 금	월 ~ 금
	정수연	흉부 · 심혈관계	월 ~ 금	월 ~ 금
	노경희	유방	월 ~ 금	월 ~ 금
	오지수	근골격	월 ~ 금	월 ~ 금
	송인섭	근골격, 척추	월 ~ 금	월 ~ 금
	박범균	인터벤션	월 ~ 금	월 ~ 금
	김은영	일반외과, 유방, 갑상선질환	금	월, 목
	문재영	소화기질환, 일반외과	-	-
외과	전문희	일반외과, 유방, 갑상선질환	화, 수	금
	김우영	간, 담도, 체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김주섭	장기이식(간), 간, 담도, 체장	휴직 (~23.10.09)	
	이유니	간, 담도, 체장, 탈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월, 수	화, 수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목
	정진웅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 소아외과, 일반외과	화, 수, 금	화
	이종명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김철승	유방 · 갑상선	화, 금	화, 목
	김예정	유방 · 갑상선, 일반외과	휴직 (~23.10.31)	
	김하람	유방 · 갑상선	월	수, 목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 이식	화, 금	화, 목
과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 이식, 유방-갑상선	휴직 (~24.02.12)	
	김미진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 이식, 유방-갑상선	휴직 (~23.09.30)	
	김예정	소아외과	휴직 (~23.10.31)	
	서연호	폐, 종격동	수, 금	월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목	수
	조정열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동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김수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응급의학과 230-8280	이현희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노윤채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박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어지럼증	월, 화, 금	화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수, 목	월, 수, 금
	윤용순	보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림증후군, 족부클리닉	월	월
재활의학과 230-1460	윤석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최준섭	뇌졸중재활, 근골격계재활, 족부클리닉, 하지교정, 척추증만증, 부정림증후군	월, 수, 금	화, 수, 금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화, 수	화, 목, 금
	최줄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화, 목, 금	수, 목, 금
	유기배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화, 목	화, 목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월, 목	월, 수, 목, 금
	최말례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항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월, 화, 목	월, 화, 수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나익현	중독, 정신장애, 청소년정신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사회공포증), 기분장애(우울), 불면증	화, 목	월, 화, 목
	한명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질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정의섭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월, 수	-
정형외과 230-1430	신홍식	견·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김민우	척추 및 하지외상	목	수, 목, 금
	이상영	슬관절(무릎관절), 족부족관절, 스포츠의학	수, 금	월, 화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 유전학검사, 임상경감학검사	월 ~ 금	월 ~ 금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최인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월 ~ 금	월 ~ 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요검진, 검사정보화	월 ~ 금	월 ~ 금
	송윤관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치과 230-1540	최현미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화, 목, 금	-
피부과 230-1490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화, 수, 금	월 ~ 금
	이여진	일반 피부질환(알레르기, 건선, 여드름), 피부미용(Fraxel, CO2, Nd yag, Toning laser)	월, 수, 목	-
핵의학과 230-8780	김민우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 ~ 금	월 ~ 금
	문은하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 ~ 금	월 ~ 금